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너는 때때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22,23

- 일 시 _ 2014년 5월 15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_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계단
- 주 최 _ 세월호 사태를 함께 아파하고, 참회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일동
- 참여단체 _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대전기윤실, 대전여신학자협의회, 새벽이슬, 성서대전, 신비와저항, 평화누리, 하나누리 갈등전환센터,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함께 드리는 기도

- 사회 :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 회중 :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우리의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프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 사회 : 4월 16일, 나라를 믿고, 사회를 믿고, 어른들을 믿었던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들은 그 믿음을 배신한 우리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 회중 : 무엇보다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이 땅의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은 그 슬픔을 달랠 길 없어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 사회 : 아이들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부등 껴안고,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회중 : 그러나 아이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어른들과 소위 지도자들은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 사회 : 선장은 자력으로 탈출이 가능한 탑승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틀어놓고 무책임하게 몰래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 회중 : 정부와 해경은 구조보다는 여론을 더 의식하며 책임전가에 급급했고, 국정을 책임 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랫사람만 탓하며 자신들은 지휘본부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 사회 : 언론마저 생명을 살리는 구조에 더 집중하도록 고발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대통령 동정이나 살피고, 어떻게든 파장을 줄이려는 정부와 당국의 입맛에 맞춰 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 회중 : 하나님! 우리의 언론들을 고발합니다.
- 사회 :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함께 공모하고, 함께 협력해서 무려 300명이 넘는 생떼 같은 소중한 목숨들을 차가운 물속에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 회중 :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 어른들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 사회 :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나 울며 애통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 회중 : 다시는 이러한 황당한 일이, 다시는 이러한 불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 사회 : 주님, 이제는 국민 위에 앉아 군림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일꾼들을 똑바로 찾게 하여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 : 주님, 이 땅에 진실과 국민보다 돈과 권력을 더 두려워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언론들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 : 주님, 이 땅에 후퇴한 민주주의와 빼앗긴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 : 주님, 돈과 권력에 취해 선지자적 영성을 포기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 : 주님,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 : 그리고 간절히 비오니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머물러 있는 소중한 분들이 속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 무엇보다 잠수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 회중 : 주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꼭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다함께 : 이 모든 말씀을 아픈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 사태를 참회하며 모인 우리의 소리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구조는 되었으나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모든 진심을 담아 참회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20여 명이 넘는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선박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선원은 물론, 구조와 대책을 담당한 해경, 군, 관계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해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대다수가 청소년들이나 희생자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언론들이 뒷사람과 여론의 눈치만 보며 진실 보다는 흥미위주의 보도로 일관하여 희생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기 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구조와 사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한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같은 또래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지만, 여전히 실종자들이 언제쯤 구조될지, 과연 진실은 밝혀질지, 이에 합당한 책임과 재발대책은 정말 만들어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러한 가슴 아픈 참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는 애도와 조문을 넘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이 나와야 할 때라 믿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일념을 담아 이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첫째, 여전히 충격과 비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정치성, 순수성 운운하며 다시 대못을 박는 무책임한 언동은 누구든 멈춰야 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전적으로 인재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기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특검과 청문회를 실시하여 숨겨진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혼란으로 인명피해를 더 키운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언론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단 현장 책임자들의 잘못만 부각하여 서둘러 매듭지으려 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구조와 그 책임자들을 철저히 드러내고 합당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국민 모두는 여전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실종자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이 아픈 사실을 명심하여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대책 마련에 더 한층 마음을 모으고, 특히 한국교회회는 우리 모두가 왜곡된 성장주의를 벗고 생명존중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세월호 사태를 함께 아파하고, 참회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일동

순서

- **사회** : 구교형 목사(찾는이광명교회)
- **촛불점화** : 다같이
- **찬송** : 사망의 그늘에 낮아(그날), 마음이 지쳐서(누군가 널 위하여)

사망의 그늘에 낮아(그날)

사망의 그늘에 낮아 죽아가는 나의 백성들 /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있는 나의 자녀들 /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 날 /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온 땅 가득한 그 날

마음이 지쳐서(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기도 할 수 없고 /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 마음이 무너질 때 /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함께 드리는 기도** : 양민철 목사(희망찬교회) / 다같이 * **2쪽**
- **관련영상 상영**
- **설교** :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무섭고 놀라운 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30-31)"

- **합심기도** : 다같이

1. 유가족들의 위로와 남은 실종자들을 속히 찾도록.
2. 특검과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책임이 시행되도록.
3.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대책이 세워지고, 정치와 행정이 대대적으로 개혁되도록.

- **우리의 소리** * **3쪽**

- **현장의 소리** : 김기호 집사(더불어숲동산교회)
- **추모시 낭송** : 정인애 권사(찾는이광명교회)
- **자유발언** : 누구나
- **찬송** : 눈을 들어 하늘 보라(515장)

-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중에 /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중에 / 외치는 자 많건 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 대답할 이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 **공동축도** : 다같이

지금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세월호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행진**